

Camouflage Colour Therapy를 이용한 이미지 개선에 관한 연구

-오타모반, 화염성모반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lour Therapeutic Make-up

-Focused on Ota's nevus and Nevus flammeus-

김 영 자⁺ · 류 근 종

Youngja Kim⁺ · Keunjong Lyu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Ph. D.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Nowadays, we recognize as one has to learn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to be prepare with the global competitive power. At this point of time, it takes an increasing interest in facial expressions and images, and it has become one of communicational tools. The concept of a personal image is seriously considered as a point of differences in personal behavior.

Today is called as a generation of external image and people put enormous effort to keep their image to be clean and neat.

This research is purpose to give self-confidence to people whose have inherent pigmentation troubles, Ota's nevus, nevus flammeus and so on, by naturally covering various imperfections.

In this study, it analyses the differences between basic everyday make-up and the color therapeutic make-up in parallel with actual practice research by using the basic colors and special camouflage colors which take a big part of image expression. Also, this report refers to previous researches and studies. It has limited the main subject to the Ota's nevus and nevus flammeus.

In the current beauty industry, people are extensively demanded total co-ordination. And the camouflage color therapy is the first step of cosmetic concept care for those who incurable patients. To the people who needed camouflage therapy, it improves one's charms, social confidence and healthy looking character.

The camouflage patients are usually get it done at the medical center; however, it is not exactly the doctor's field. Therefore, the therapy is not clear enough to look as natural as it can be. And the most of medical center is not affordable for hiring professional camouflage make-up technician.

From now on, the educational institutes with beauty major should scale up and deepen the camouflage therapy studies to offer more effective information to those who suffered from pigmentation regarded problems. Furthermore, hopefully the new and growing industry will produce another job opening for the students.

Key Words : Color therapeutic Make-up, Ota's nevus, Nevus flammeus

접수일: 2007년 2월 1일

교신저자: 김영자, E-mail: friendship.choi@gmail.com

I. 서론

1. 연구목적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이며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져 오고 있고 최근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몸짱, 얼짱 등의 신조어와 함께 신체 내적인 건강과 더불어 외적인 건강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누구나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얼굴 표정이나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고 있으며 얼굴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중요한 한 방법이 되고 있다.

얼굴을 매개로 한 좋은 이미지란 타고나지 않아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만들고 높여 질수 있는 것이다. 이에 외적 이미지로 차지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메이크업이라고 본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최대한 살려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외적 이미지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색소이상증상, 오타모반, 화염성모반등 타고난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차별화된 메이크업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적절한 색채 메이크업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결점을 커버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선천적으로 피부 색채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활의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가진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로 발표된 피부과학 서적을 참고로 하여 오타모반, 화염성 모반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일반적인 메이크업의 방법과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 이미지 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적인 색채를 중심으로 하여 얼굴에 나타난 색채적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캐머플라주 컬러테라피의 방법을 제안하고 제한된 집단의 피실험자들에게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심층면접법으로 그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피부와 메이크업

1. 피부의 생리적 색 요소

피부는 신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 표피, 진피 및 피하지방층으로 이루어지며, 피부 부속기로는 한선, 피지선, 모발 및 손, 발톱 등이 있다. 성인의 평균 피부 면적은 1.6㎡, 중량은

체중의 16%로 인체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이며 구조, 기능, 해부학 및 생리학적으로 그 기능이 매우 복잡하다.1) 피부의 일부를 표면에서 수직으로 잘라 현미경으로 보면 피부는 위로부터 진피, 표피, 피하조직 등의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피부의 두께는 신체의 부위에 따라, 또 연령, 성별, 영양 상태에 등에 따라 다른데, 대개 평균해서 2~2.2mm이고 피하 조직을 빼면 평균 1.4mm가 된다. 또 일반적으로 남자의 피부는 여자보다 두꺼운데, 피하조직은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도 두껍다.2)

사람의 피부색은 인종과 지역, 성별, 연령 및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르며, 동일인에 있어서도 부위별, 계절별로 다르고 또한 건강상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도 변화한다. 피부의 색은 표피에 존재하는 색소세포인 멜라닌 세포에서 생성하는 멜라닌 색소의 양과 분포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며 그 밖의 진피의 현관 속에 함유된 헤모글로빈과 피하조직의 카로틴과 같은 색소의 양, 피부의 두께와 반사도 및 혈류량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멜라닌이다. 멜라닌의 생성에는 수많은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며 그 인자들 중 자외선은 멜라닌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3)

피부의 황색은 카로틴에서 유래한 것으로 루틴이나 헤스페리딘과 같은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피부에 황색을 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 젊은 층보다 고령층이 색소가 더 많으며, 부위별로는 손바닥, 발바닥에는 색소가 적고 안면이나 음낭, 음순, 항문주변과 같은 생식기 계통, 그리고 유두 등에는 많다.

1) 멜라닌

멜라닌 세포는 태생기의 신경에서 유래하여 배형성 시기에 피부를 포함한 여러 부위로 이동하며 피부에서의 멜라닌 세포는 주로 모낭이나 기저층에 위치하고 있다. 멜라닌 세포는 표피에서 적황색 또는 흑갈색의 멜라닌을 생성하여 각질형성세포로 공급하는 수지상 세포이며 그 수지상 돌기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로 주위의 각질형성 세포 사이로 분지되어 있다. 이런 구조가 멜라닌을 주위의 각질형성세포로의 전달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으며 전달된 멜라닌은 표피 기저층의 상부로 확산되어 자외선에 의해 기저층의 세포가 손상 되는 것을 방어한다. 표피의 멜라닌 세포는 주위의 대략 36개의 각질형성세포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주위의 각질형성세포들과 표피 멜라닌 단위를 형성한다. 멜라닌 세포의 수적인 분포는 피부의 부위별로 다르지만 피부에서의 멜라닌세포는 각질형성세포의 1:4~1:10의 비율로 존재한다.

1) 고재숙 외(2000), 피부과학. 서울: 수문사, p.10.

2) 김병우 편저(1998), 피부과학, 향장품학, 서울: 유신문화사, p.10.

3) 고재숙 외, 위의 글, p.70.

2)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호흡에 관계하는 물질로 주로 혈액의 적혈구 속에만 존재한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분자와 가역적으로 결합해서 산소를 세포와 조직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 산소와 충분히 결합된 헤모글로빈은 붉은 색을 나타내고 산소와 결합하지 못한 헤모글로빈은 푸른색을 나타내는데, 그 결과 건강한 사람의 피부는 활력이 있고 붉게 보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피부는 산소가 부족하여 활력이 없고 푸르스름하여 창백하게 보인다. 피부 표면 가까이에 모세혈관이 분포해 있는 안면, 목 부위 등에서는 헤모글로빈의 붉은색이 피부색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3) 카로틴

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일종으로 α , β , γ 3종의 이성체가 있다. 피부의 황색은 카로틴에서 유래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다. 카로틴은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고 당근, 토마토와 같은 식물에서 합성되므로 외부에서 섭취되는 것이다. 카로틴은 주로 피하조직에 존재하며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 작용한다.⁴⁾

2. 메이크업(Make-up)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에 각자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표출된 것이 이미지 관리와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와 함께 발달하여 왔다. 또한 메이크업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체화되었다.

메이크업이란 여러 가지 화장품과 재료, 도구를 이용하여 얼굴의 단점을 수정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보다 나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며 미술과도 같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은 사전적 정의⁵⁾ 이외에도 비누를 사용하여 세안을 하는 것, 로션이나 화장수를 바르는 기초화장 그리고 남성들의 면도, 수염 단장 피부 관리를 총칭하는 남성화장, 세발, 정발 등 모발관리와 손질을 위한 두발 화장 및 기타 목욕, 문신(Tattoo)등을 메이크업(Make-up)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의들을 통하여 메이크업은 인체의 일부에 색상을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뿐 아니라 기타 결점커버로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를 가능케 한다.

4) 고재숙 외, 앞의 글 p.72.

5) 사전적 의미는 메이크업(Make-up)[명사][하다형 타동사]은 1.화장(化粧) 2.배우가 출연을 위해서 하는 화장이며 화장의 의미는 화장(化粧) [명사][하다형 자동사] 화장품을 얼굴 따위에 바르고 매만져 곱게 꾸밈, 화장한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모의 조화로 인한 만족과 자신감을 얻게 되어 타인과 자아를 인식, 자연적인 고유미와 개성미를 창출하는 등 더 좋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⁶⁾

메이크업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비롯되어 온 것으로서 영어의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꾸어쥬(Maquillage)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신의 외모의 장, 단점을 적절히 커버하고 부각시켜서 보다 나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이라고 하는 화장의 형태는 미국의 할리우드(Hollywood) 전성기로부터 기인하는 데 이보다 앞서 17세기 초기 영국시인 리차드 크라츄(Richard Crasu)가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화장을 뜻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 하였다. 이보다 앞서 16세기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페인팅(Painting)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백남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은 것을 얼굴에 화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⁷⁾

이렇듯 화장을 단순한 화장의 행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결점을 보완하여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미는 행위이며 자아를 하나의 개성으로 담고자 하는 이미지업(Image-up)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내면의 미와 외형적인 아름다움의 조화를 잘 표현해 내는 개성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양식 이다.

III. 색소이상의 증상

피부색소 이상증상에는 멜라닌 색소가 정상보다 적게 생성되는 백반증, 백색증 등의 저색소 침착증과 기미, 주근깨, 오타씨 모반, 흑자 등의 과색소 침착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중증 장애인 오타모반과 화염성 모반을 알아 보았다.

1. 오타모반

진피 멜라닌세포로 인하여 삼차신경이 분포하는 눈주위의 피부와 공막에 미만성의 청색반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오타 모반은 몽고반에서처럼 진피 멜라닌세포의 잔류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청색모반과 유사하게 일종의 모반양 병변으로 생각된다. 이 질환은 한국, 일본 등 동양인에 많으며 백인과 흑인에서는 드물다.

상당수는 출생시부터 존재하고 있으나 일부는 유아기, 소아기, 성인기에 생기며 소아기를

6) 양진희 (2001),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1990년대에 나타난 1950, 196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건국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11.

7) 김봉인 (1994),화장행위의 주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19

통해 점차 색깔이 짙어지고 넓어진다. 동일한 청색을 띠는 몽고반과 달리 피부 병변은 갈색, 회청색, 흑청색의 반점이 혼재되어 있으며 삼차신경의 1지와 2지가 분포하는 눈주위, 관자놀이, 이마, 광대뼈 부위, 코에 흔히 나타나고 눈의 병변은 흔히 공막의 청색반으로 나타나나 결막, 각막, 망막에도 생길 수 있다.

2. 화염성 모반

화염성 모반은 Port-Wine Stains의 동의어 또는 Port-Wine stain과 Nevus Simplex(Salmon Patch)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유두 진피와 망상 진피의 상부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혈관의 기형으로 출생시부터 존재하며 자연 소실은 없다. 단독 혹은 다른 질환의 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얼굴과 목에 호발한다. 얼굴에서는 삼차 신경의 분포 부위에 호발한다. 초기는 분홍색의 반으로 나타나나 나이가 들수록 짙어지며 조적이 비후된다. 병변이 큰 경우 신경학적, 안과적 등 다른 선천성 이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IV.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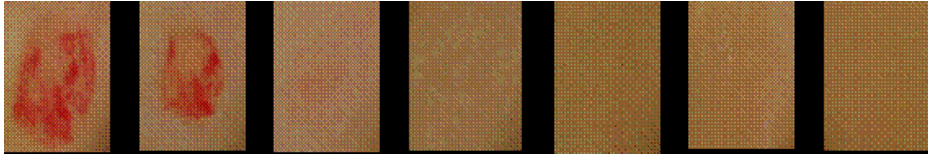
1.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의 정의

피부결점에 대해 더 이상의 의료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특수 화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피부결점을 커버하는 준의료 행위로서의 특수 화장법이다. 피부에 따른 의학적 접근과 특수 화장법을 통한 결점의 커버, 피부장애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지지 받는 프로그램을 통한 총괄적인 치료 방법이다. 피부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최대한 정상에 가까운 피부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고 자신감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와 일반 메이크업의 차이점

일반메이크업은 대상자가 일반인인 반면에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의 메이크업 대상자는 환자이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 수술 후 피부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저 자극 제품을 사용 한다.의료적인 치료나 약물 복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고 물이나 땀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일반 메이크업 제품 보다 지속력과 밀착력이 오래가고 다양한 색상으로 피부색에 접근한 칼라를 창출 할 수 있으며 병변을 가리기에 적합하다.일반적인 잡티, 기미, 뽀루지 같은 결점은 화운데이션과 브러쉬만 가지고 커버가 가능 하지만, 화염성 모반, 오타모반 같은 결점은 화운데이션의 2-4가지색상으로 브랜딩해서 원래의 본인의 피부색과 경계선이 나지 않도록 한다.8)



<그림 1> 화염성 모반의 커버 시술과정



<그림 2> 시술 전



<그림 3> 시술 후

3.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의 장점

쉽게 외모를 개선할 수 있고 시술 후 회복이나 약물치료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고 메이크업 후 두꺼워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4.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 시술 전 체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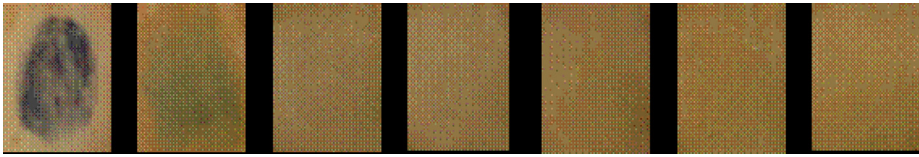
환자의 병력을 체크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화장품을 분석하고 화장품 사용후 알러지 유무를 체크하고 환자가 어떤 병의 약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5.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 시술 방법

1) 화염성 모반의 시술방법 및 사례

- (1) 피부톤을 중화시키기 위해 피부톤 보정 제품으로 보습효과가 우수한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한다. 연한 자줏빛 또는 라벤더 컬러의 제품은 푸르거나 황색톤의 결점을 중화하는데 효과적이며 그린컬러의 제품은 붉은톤의 피부 컬러를 중화하는데 효과적이다.
- (2)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 전문 크림타입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결점을 커버한다. 결점은 붉은 결점과 푸른 결점으로 구분하여 커버하도록 한다.
- (3) 병변 부위를 가장 잘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붉은 반점 일 경우 동색 즉 채도가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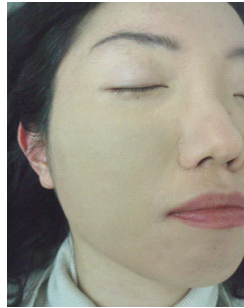
8) Joel Gerson (1999), Standard Textbook for Professional Estheticians, New York. Milady Publishing... p.481



<그림 4> 오타모반의 커버 시술과정



<그림 5> 시술 전



<그림 6> 시술 후

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푸른 반점일 경우 보색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것이다.

- (4) 시술을 할 때에는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는 테크닉을 이용하고 파운데이션의 양은 소량을 취하여 여러 번 반복해 덧발라주어야 한다. 2-3가지 색상을 선택하여 피부색과 모반의 상태를 분석하여 소량씩 믹스하고 마지막으로 수분을 이용해서 피부에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5) 도포할 때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파운데이션을 도포하기 전 피부에 충분한 보습을 주어야 하고 파운데이션이 잘 밀착되도록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다. 메이크업 베이스의 경우 여러가지 색이 있으나 주로 베이지, 핑크, 그린계열이 있고 피부 기본 톤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환자의 병변이 크기와 위치 등을 고려하고 환자의 성별에 따라 파운데이션의 도포범위를 정할 수 있다. 병변 부위만 커버할 것인지, 정상 부위까지 함께 커버할 것인지를 정하고 선택된 파운데이션을 잘 **Blending**해 도포하게 되는데 **Rubbing**이 아닌 **Dadding**의 방법으로 피부에 도포하면 된다.

다음 단계는 파우더인데 이는 파운데이션을 안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다. 파우더 속의 **Talc** 성분은 파운데이션이 밀리거나 닳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파우더는 크게 무색과 베이지색으로 나누며 안면부는 무색이 체부에는 베이지색이 적합하나 개개인의 기본 피부톤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파우더까지 도포하게 되면 기본적인 메이크업 컬러 테라피의 과정은 끝난다. 여자 환자라면 간단한 색조화장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2) 오타 모반의 시술방법 및 사례

- (1) 피부상태에 따라 건성피부는 기초화장을 간단히 하고 모이스처 효과가 우수한 메이크업 베이스로 피부를 정돈하며 지성피부는 매트한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여 피부를 정돈 한다.
- (2) 반점 부위에 붉은 기운의 제품을 이용하여 결점과 피부의 경계선을 커버한다.
- (3) 개인의 피부 색상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여 붉은 기운의 제품과 섞어 결점을 전체적으로 커버한다.
- (4) 결점 부위가 거무스름하게 배어나올 경우 진한 붉은 컬러의 제품과 피부톤과 비슷한 컬러를 1:2의 비율로 섞어서 다시 터치해 커버한다.
- (5) 개인의 피부톤에 맞는 기본색으로 다시 한번 도포한다.
- (6) 피부의 밀착력을 위하여 물처리를 한다.

6.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의 시술결과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시술 방법으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 까지 총 10여명의 중증이하의 병력을 가진 오타모반, 화염성모반 대상자에게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의 방법을 적용하여 메이크업 시술을 하는 실증연구를 하였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 5가지로 핵심적인 문항의 질문지를 제작하여 1인당 30여분에 걸쳐 총 5회씩 심층면접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용감에 대한 “문항에서는 가볍고 편하다.” 라는 표현의 응답자가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는 커버력에 대한 문항이며 이 질문에 대해서는 70%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는 시술의 지속력에 대한 문항으로 응답자가 80%가 “일반 메이크업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답하였다.

넷째는 커버 시술 후 체감하거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투명도에 대한 문항으로 응답자의 80%가 “매우 자연스럽게.” 라고 답하였다.

다섯째로 색소성 결점 커버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80%가 “만족한다.”고 하였고 20%의 응답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색소성 모반을 고민하고 있는 환자들은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의 시술 결과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 론

현대는 ‘감성의 시대’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욕구가 그 어느 시대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색채는 가장 적절한 도구가 되며 특히 타인과 차별화된 자아를 중시한 개성으로 스스로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색채 감각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오타모반, 화염성모반 등을 타고난 사람들을 위해 임상실험하여 개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한 코스메틱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의 시술대상자는 이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육체적으로는 더욱 건강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

둘째로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의 한계로는 첫째로 피부의 성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며 방수성을 가지나 마찰에 의해 변화되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지나치게 지성피부인 환자에게 사용되기 힘든 특수성을 가진다.

셋째로 캐머플라주 컬러 테라피의 방법으로 오타모반, 화염성모반의 메이크업 기술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술 대상자의 특수 환경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심층면접법이란 연구 방법으로 결론을 일부의 도출하였다.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을 상대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의 프로세스가 개발되고 이를 통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메이크업 시술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이향우 외 (2003). 피부과학. 서울: 광문각.
고재숙 외 (2000). 피부과학. 서울: 수문사.
김병우 (1998). 향장품학. 서울: 유신문화사.
유연주 (2004). 현대 메이크업의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류미영, 이미영 (2006).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6권(1호)
김희숙, 이은임 (1986).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수문사.
Johannes Itten (1996). *The Color Star*. van nostrand rein hold
존 필립 랑크로 (1998). 색채 디자인. 서울: 도서출판 국제.

편집부 (1992). 컬러 이미지와 코디네이션. 서울: 라사라 출판사.

정은희 (2003).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진희 (2001).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1990년대에 나타난 1950, 196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건국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Linda Seidel with Irene Copeland (1984). *THE ART OF CORRECTIVE MAKE-UP*. New York: Linda Seidel and Irene Copeland.

Joel Gerson (1999). *Standard Textbook for Professional Estheticians*. New York: Milady Publishing.